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택 상승선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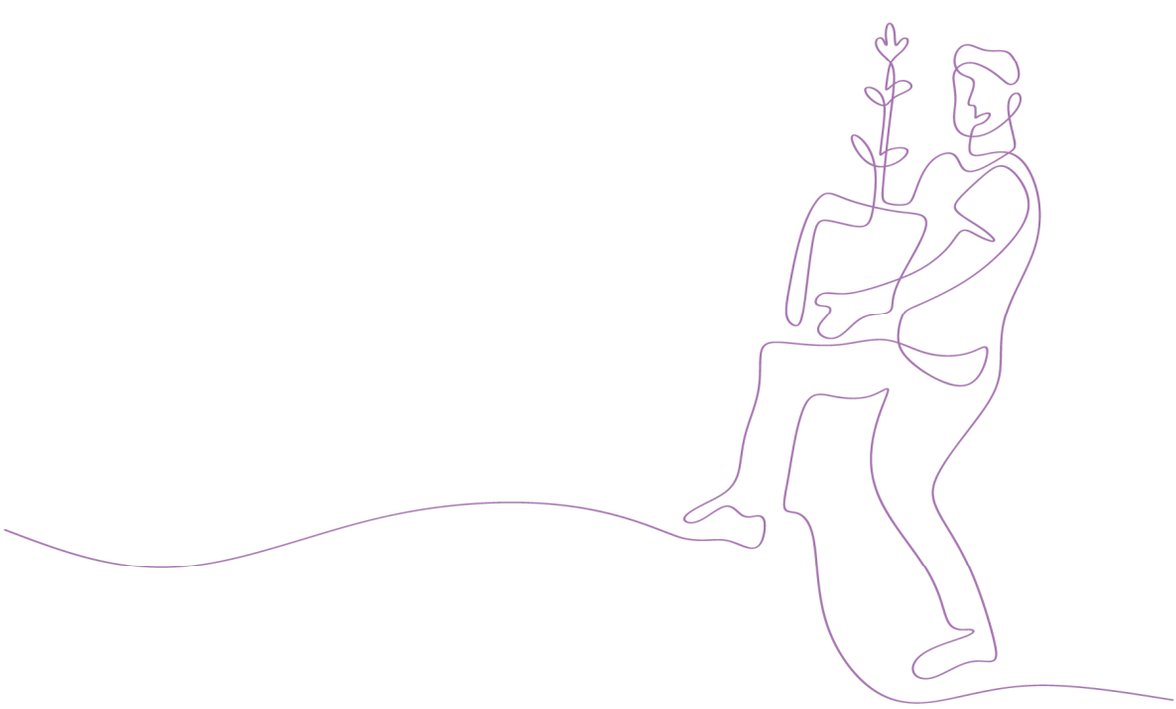
4-4

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택 상승선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4-4

上昇線

상승선

이상모택



4-4

[상상 모의고사 임팩트 원 - 상승선]

시즌 4 제4차 모의고사

[선별 세트]
[22~27] 윤동주, 투르게네프의 언덕, 손택수, 차심, 조익, 양졸암기



임팩트 원 해설지 활용법

'임팩트 원'은 '상상'과 '이승모T'가 생각하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유의미한 세트, 내지는 되짚어볼 만한 세트를 선별한 것입니다. '상상' 역시 사설이기에, 전 문항을 모두 기출처럼 분석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가져가라는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즉 모의고사를 풀고, 나름의 오답을 한 이후, 가볍게 읽어보면서 가져갈 것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임팩트 원 해설지는 총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실전)

- 쉽게 말해 제가 실전에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풀었던 방식과 사고를 위주로 설명합니다. 실전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설명하기에, 해설지의 사고와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푼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듯합니다.~~(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잘 읽겠지요?)~~ 특히 본인이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여기서 얻어갈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02 |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사후적 학습)

- 실전과 사후적 학습은 항상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공부할 때 챙겨갈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계 학습부터, 지문을 읽는 방식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정리가 됩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해?'라고 받아들이시면 이건 해설지의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전에서 가능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것들은 꼭 사후적으로 공부하면 추후 학습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쓴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03 | 임팩트 원은 해설 강의 역시 상상 국어 유튜브에 제공됩니다.

해설 강의와 겹치는 내용이 있겠으나, 해설 강의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이 해설지에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해설 강의는 간결하게 필요한 것들을 집중해서 말하는 성격이라면, 이것은 얻어갈 것을 싹 다 털어간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04 | 해설의 가독성과 재미를 위해 약간의 드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관성이 아닌 정성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

안녕하세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오늘은 수업 방향이 명확합니다. 9평 대비 나는 이렇게 풀었다! 그러니까 9월에 어쨌든 수필 복합이 뜬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수필 복합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지 운영에 차질이 없어요. 아무래도 늘어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니,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수필을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긴 어려우실 테니 사설 모의고사 풀 때마다 한 번씩 사후적으로 수필 이해해보는 공부도 꼭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덜 신경 쓰는 걸 본인이 신경 쓰면 그게 곧 변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저는 수필 복합 풀 때, 사실 (가)~(다)를 한 번에 읽고 풉니다만, 따로 읽을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요. **학생들에게 권장할 때는 같은 영역끼리 읽고 풀고, 수필을 따로 풀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 (가), (나) 읽고 22-25번 풀고 (다) 읽고 26, 27번 풀었다는 얘깁니다.** 한 번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해설지는 본인이 9평을 앞두고 수필 복합 잘하고 있는지 사고를 맞춰보면서 점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는 낯선 현대시입니다. (나)는 연계니까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맞고요. 〈보기〉를 먼저 읽든 나중에 읽든 그건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지만, (가)의 경우 작가는 너무 유명한데, 작품이 너무 낯서니까 그럴 땐 〈보기〉부터 읽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가)의 화자는 타인과 소통을 이루지 못한 데 따른 단절감으로 인해 자신의 한계를 성찰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상처의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구구절절 떠들어봤자 타인과 소통을 이루지 못해 단절감을 느끼고, 자신의 한계를 성찰하는 작품입니다. 역시 윤동주는 성찰이죠. (나) 작품 역시 상처의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타인과의 관계가 굳건해지길 바라는 소망과 관련된 작품입니다. 〈보기〉를 먼저 읽을 것이면, 잘 읽고 들어가는 게 좋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 때 시를 100%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맥락'을 잡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다 읽고 나면 최소한 이 시는 이런 시다! 정도는 남아야 한다는 거죠. 〈보기〉 읽었으니까 바로 지문 들어갑시다.

(가)

나는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그때 세 소년 거지가 나를 지나쳤다.

첫째 아이는 잔등에 바구니를 둘러메고, 바구니 속에는 사이다 병, 간즈매 통, 쇳조각, 헌 양말짝 등 폐물이 가득하였다.

둘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셋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텁수룩한 머리털, 시커먼 얼굴에 눈물 고인 충혈된 눈, 색 잃어 푸르스름한 입술, 너덜너덜한 남루, 찢겨진 맨발,

아 – 얼마나 무서운 가난이 이 어린 소년들을 삼키었느냐!

부탁합니다. 시를 모르겠어도 차분히 읽어야 합니다. 시의 맥락을 〈보기〉에서 잡더라도 시를 차분히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학생들 중에는 시간 아끼겠다고 어차피 시 이해 안 되니까, 〈보기〉 적당히 읽고, 시 날려 읽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시간 큰 차이 안 나요. 그냥 차분히 읽어보세요. 이 시도 어려운 시가 아니죠. 그냥 거지 소년 세 명과 마주친 거고, 연민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측은한 마음이 움직이었다.

나는 호주머니를 뒤지었다. 두툼한 지갑, 시계, 손수건…… 있을 것은 죄다 있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용기는 없었다. 손으로 만지작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다정스레 이야기나 하리라 하고 "얘들아" 불러보았다.

연민합니다. 화자의 주머니에는 충분히 부유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줄 용기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연민은 드니, 다정스럽게 이야기라도 걸고 싶습니다. 〈보기〉를 잘 읽었다면, 여기서 '한계인가?'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줄 용기는 없고, 연민은 들고. 이런 상황입니다.

첫째 아이가 충혈된 눈으로 흘끔 돌아다볼 뿐이었다.

둘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셋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네끼리 소근소근 이야기하면서 고개로 넘어갔다.

언덕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짙어가는 황혼이 밀려들 뿐 –

세 아이 모두 ????????? 이런 상황입니다. 네. 소통에 실패했어요. 단절감이죠. 아이들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만 읽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의미를 파악하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이거 읽는데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차분하게 읽읍시다.

– 윤동주, 「투르게네프의 언덕」 –

(나)

차심이라는 말 있지

찻잔을 닦지 않아 물이끼가 끼었나 했더니

차심으로 찻잔을 길들이는 거라 했지
가마 속에서 흙과 유약이 다툴 때 그릇에 잔금이 생겨요
뜨거운 찻물이 금 속을 파고들어 가
그릇 색이 점점 바뀌는 겁니다
차심 박힌 그릇의 금은 병균도 막아주고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 준다고……
불가마 속의 고통을 다스리는 차심,
그게 차의 마음이라는 말처럼 들렸지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은 잔에선
차심만 우려도 차 맛이 난다는데
갈라진 너와 나 사이에도 그런 빛깔을 우릴 수 있다면
아픈 금 속으로 찻물을 내리면서
금마저 몸의 일부인 양

이건 그냥 연계를 털어버립시다. 제목이 '차심'입니다. 이것의 의미만 알아도 시가 뚫려버립니다. '차심'은 찻잔의 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잔금이 병균도 막아주고 그릇을 더 조여준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화자가 어떤 인식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지요. 마지막 세 줄이 그 답이 됩니다. 결국 화자는 잔금을 통해, 인간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서로가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요. 그런 상처가 곧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든다는 인식을 보여 줍니다. 연계 끝났네요. 수능까지 다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손택수, 「차심」 –

22.

(가), (나)만 읽고, 바로 ①, ②, ④가 소거됩니다.

① (가)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특정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② (나)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시구를 변주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1차 소거
③ (다)는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2차 소거
⑤ (가)와 (다)는 모두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23.

문제 잘 냈습니다. 또 제가 흥분을 해야겠군요. 적당한 난이도에, 여러분들에게 교훈도 주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답을 맞고 틀리고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답 선지가 선명해 보였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②를 보자마자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면 그럴듯해서 넘겼다가 고른 건지, 대체 이 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딱 선지 세 개만 보겠습니다.

② (가)에서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용기'가 없었다는 것은, 자신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타인과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화자의 소극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보자마자 이상했어야 합니다. 아닌가요? 거지들이 화자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건 화자가 거지들을 부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주머니에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보고 나서, 이것들을 내줄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거지들을 불렀으나, 거지들은 냉담하게 그냥 가버린 상황인 겁니다. 쉽게 말해 주머니 속 물건을 볼 땐, 아직 이들이 냉담하기 전이라는 겁니다. 너무 깔끔하게 잘 냈지요. 그럼 왜 어떤 누군가는 ②를 보자마자 이상했고, 어떤 누군가는 그럴듯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딱 하나로 봅니다. 시를 차분하게 읽었냐, 날려 읽었냐예요. 차분하게 읽었으면 상황의 순서가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겠지요. 그런 사람은 ②를 보자마자 아직 냉담하기 전인데? 하고 끝납니다. 근데 시를 뭉개면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고 고민해보고 그러다보면 세모치고 넘어가고 시간 끌고, 그러다가 희한하게 ④찍고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시가 이해가 잘 안 되셔도 차분히 읽으세요!**

③ (나)에서 '차심'이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 준다'라는 설명을 들은 상황은, 화자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군.

- 계기라는 말은 항상 엄밀히 따져줘야 합니다. 잔금을 보고 잔금이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 준다는 걸 알게 된 후, 화자는 인간관계로 사고를 확장하고 있으니 적절합니다.

④ (가)에서 '홀끔 돌아다볼 뿐'인 반응은 타인과의 소통에 실패한 정황을, (나)에서 찻잔을 만들 때 '잔금이 생'기는 것은 타인과 화합하지 못하고 문제를 겪는 모습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군.

- 시의 맥락이 긍정적인 인식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잔금' 자체는 인간관계로 보면 상처나 갈등 이런 것이 됩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24.

답은 안 어려운데 해설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은 ④입니다.

④ ㉣은 이전과 달리 대상들을 자신과 대등한 존재로 바라보려는 화자의 노력을 부각하는 것이다.

- 첫 번째는, 아마도 학생들은 이렇게 풀었을 것 같긴 한데, 당연히 대등한 존재로 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민도, 결국 같은 인간이라고 보니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고, 솔직히 윤동주가 거지들을 보고 급을 나눌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등한 존재로 바라봤겠지! 그러니까 '이전과 달리'가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난의 정도로 급을 나눈다면, 화자 입장에서는 거지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상황이고, 그래서 말이라도 건네보겠다는 거니까, 애초에 화자가 대등한 존재로 본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조심스럽게 예측하자면, 출제자의 의도는 두 번째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보기〉에 '자신의 한계를 성찰'한다는 말이 있어서, 이것이 곧 화자의 한계인가? 라고 생각하고 내셨으면 두 번째 풀이의 의도로 내신 것 같은데, 뭐. 모릅니다. 아무튼 답은 ④인데, 첫 번째로도 푸는 학생들이 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적어 봤어요. 확실한 건 둘 다 포인트는 같습니다. 화자가 거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대등한 존재로 바라봤다면 계속 그렇게 봤던 거고, 대등한 존재로 안 봤다면 계속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25.

답이 손 들고 있습니다. 답은 ①입니다.

자, 이제 수필을 읽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수필은 주제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최소한 글 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야 하는 거죠. 다만 실전에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보기〉에서 주제를 가르쳐줄 때가 있고, 〈보기〉에서 주제를 안 알려줄 때가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보기〉가 친절하면 지문을 읽을 때 확인하는 느낌은 좀 들어줘야 하는 거고, 〈보기〉가 불친절하면 뒤로 갈수록 눌러 읽으면서 필자가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그거 하나는 납득을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 과거 문인들이 쓴 글을 보면 두 개념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통념을 설명한 후, 그 통념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독자의 인지적 전복을 유도함으로써 글쓴이가 지향하는 가치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지요.

늘 선생님 말씀은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경험치로도 꼭 알아 두세요. 결국 이 수필의 거시적 흐름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두 개념을 비교할 거고, 통념을 설명한 후, 반박을 할 겁니다. 이건 다른 수필도 많이 쓰는 방식이죠. 일단 첫 번째! 실전에서는 '반박 = 주제'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통념을 반박한다? 응. 주제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수필 많이 나옵니다. 경험치로 쌓아두시면 좋겠지요. 결국 반박은 뒤에 제시될테니 얘도 뒤로 갈수록 잘 읽어야 합니다.

(다)의 글쓴이는 '교'와 '졸'이라는 두 개념을 활용하여, 자신의 거처에 양졸암이라는 이름을 붙인 인물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음. 근데 분명히 거시적 흐름은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미시적 주제에 대해서는 뭉뚱그리고 있네요. 인물에 대한 평가를 얘기한다는데, 어떤 평가인지는 안 알려줍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건 니네가 읽으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 됩니다.

수필을 읽어봅시다.

졸(拙)은 교(巧)와 반대되는 말로서, 교와 졸이야말로 영욕과 득실이 나뉘는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교자(巧者)는 항상 얻고 졸자(拙者)는 항상 얻지 못하며, 교자는 항상 막히는 일이 없이 영광스럽고 통달하게 되는 반면에, 졸자는 항상 낭패를 당하며 빈궁과 치욕 속에 살게 마련인데, 이는 사리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도 하겠다.

바로 나옵니다. 졸과 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는 긍정적인 거고, 졸은 부정적인 겁니다. 뭐, 낭패, 빈궁, 치욕 이런 게 졸입니다. 사리상으로 당연하다는 말이 보여야지요. '통념'이라는 겁니다.

(중략)

그러고 보면 교와 졸의 차이가 또한 현격하다고 할 것이니, 하나는 소위 청운(靑雲)의 위에 스스로 오른 자라고 할 것이요, 하나는 욕되게도 진흙탕 속에 몸을 담근 자라고나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공으로 말하면, 젊은 나이에 일찍이 언로(言路)에 발탁되어 시종의 반열에 끼었고 그 뒤에는 지관(地官)의 아경(亞卿)에까지 이르렀으며, 외방으로 나가서는 대부를 역임하고 양도(兩道)의 절도사로 부임하였으니, 또한 현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의 재질을 가지고 말

한다면, 세속의 풍조를 조금만 따랐어도 국정에 참여하여 크게 쓰임이 되는 일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는 공의 종족(宗族)이나 교유(交遊)하는 인사들이 권력을 장악하고서 서로 결탁하며 자리를 점거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모두들 의기양양하며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는 것을 즐기고 있었는데, 공은 초연히 여기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면서 장차 자기 몸을 더럽히게 될 것처럼 여겼다.

그러다가 조정이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공은 자기의 분수를 편히 여기고 자연에 몸을 내맡긴 채 대중을 따라 조정에 진출하려는 마음을 두지 않았으므로, 결국에는 서로 관계가 어색해져서 합치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신과 세상 양쪽에서 서로 버리는 가운데 농촌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벼슬을 한 번 잃은 뒤로는 또 빨리도 가난해져서, 엉성한 울타리와 무너진 집 속에서 마치 빈한한 선비처럼 쓸쓸히 지내게 되었으니, 또한 곤궁하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공이 졸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지은 것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제 '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물을 평가한다고 했고,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니까 차분하게 읽으면 됩니다. '공'은 자질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만, 본인 쪽 세력이 득세할 때, 권세를 누리거나 꺼드럭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초연히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다가 조정이 바뀌었을 때, 오히려 분수를 편히 여기고, 자연에 몸을 내맡기고, 조정에 진출하려는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늘 초연했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벼슬을 잃고, 가난해졌고, 빈한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이름을 졸로 지은 것이 납득이 된다고 합니다. 졸 = 빈한, 빈궁, 낭패 이런 것이니까요.

그러나 졸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기에 또 이것을 '기른다[養]'라고 했고 보면, 이것은 졸에 대해서 스스로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힘쓰겠다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이른바 몸이 괴로워도 뜻은 변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 늙어 갈수록 신념을 지키는 것이 더욱 단단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옛날에 유자후(柳子厚)가 걸교문(乞巧文)을 지었는데, 이것은 자기의 졸을 없애 주기를 기원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공은 이것을 더욱 힘쓰고 있으니, 아, 그렇다면 공은 이 점에서 남보다도 훨씬 훌륭하다고 하겠다.

이 부분을 잘 읽어야 합니다. '공'은 집 이름을 '양졸' 즉 졸을 기른다고 지었습니다. 쉽게 말해 '졸' 된 것을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써서 기르겠다고 하는 것이니, 자신의 신념을 더욱 강하게 지키겠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신념 때문에 '졸'해지긴 했으나, 그럼에도 그 '졸'하게 된 과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공이. 그래서 훌륭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이 수필 보면서 혹시 '상상'에서 의도했다면, 이틀 전이 광복절이었는데,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독립운동하시면서 뜻을 지키느라 형편이나 상황이 '졸'해졌겠으나, 그 신념을 꺾지 않으셨으니, 그 역시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익, 「양졸암기」 –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완전한 이해도 바라지 않습니다. 최소한 수필을 읽을 때, '공'이 '졸'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 정도는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이게 피지컬이라는 것입니다.

26.

선지 딱 두 개만 보겠습니다. 하나 정도는 헷갈릴 만한 여지가 있어 보여서.

② (다)의 '재질'은 '공'이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드러낼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다.

- 이거 꽤 그럴듯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공으로 말하면, 젊은 나이에 일찍이 언로(言路)에 발탁되어 시종의 반열에 끼었고 그 뒤에는 지관(地官)의 아경(亞卿)에까지 이르렀으며, 외방으로 나가서는 대부를 역임하고 양도(兩道)의 절도사로 부임하였으니, 또한 현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의 재질을 가지고 말한다면, 세속의 풍조를 조금만 따랐어도 국정에 참여하여 크게 쓰임이 되는 일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는 공의 종족(宗族)이나 교유(交遊)하는 인사들이 권력을 장악하고서 서로 결탁하며 자리를 점거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모두들 의기양양하며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는 것을 즐기고 있었는데, 공은 초연히 여기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면서 장차 자기 몸을 더럽히게 될 것처럼 여겼다.

이거 잘 읽어보면, 젊은 나이에 발탁되었고, 심지어 절도사로까지 부임했으니, 재질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크게 쓰임이 되는 일은 하지 못한 듯합니다. 성정이 그러하니 당연히 그랬겠지요. 쉽게 말해 재질을 아예 안 드러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드러낸 것도 아니라서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낼 기회가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심지어 당시는 '공'과 관련된 세력이 권력을 장악할 때니까요.

④ (나)의 '불가마'는 '차심 박힌 그릇'이 되기 위해 대상이 겪어야 하는 시련을, (다)의 '진흙탕'은 '공'이 감수하는 삶을 상징한다.

- 대놓고 맞지요. 불가마 속에서 흙과 유약이 다툴 때 그릇에 잔금이 생긴다고 하지요. 불가마 속의 고통을 견뎌야 차심이 생기게 됩니다. '공'은 굳이 진흙탕을 자처했지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답은 ④입니다.

27.

아마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답을 고르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답이 정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잘 낸 문제이기도 합니다. 답 선지만 보겠습니다.

④ '공이 졸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지은 것도 당연하다'는 것은, 글쓴이가 ~~'졸'의 의미에 대한 통념에 근거하지 않고~~ 인물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군.

- 정말 그럴듯합니다.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수필이 완벽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글쓴이가 통념을 뒤집었을 것이고, 인물의 행위도 긍정적으로 보니까, 맞겠지? 하고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제대로 읽어보고 따져 보셔야 겨우 보입니다.

> 그리하여 자신과 세상 양쪽에서 서로 버리는 가운데 농촌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벼슬을 한 번 잃은 뒤로는 또 빨리도 가난해져서, 엉성한 울타리와 무너진 집 속에서 마치 빈한한 선비처럼 쓸쓸히 지내게 되었으니, 또한 곤궁하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공이 졸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지은 것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가난, 곤궁, 빈한해진 신세가 됐고, 그것을 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당연하겠다고 한 것은, 통념을 어긋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념대로 판단한 것이지요.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졸'이라고 집 이름 지은 것은 당연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른다는 것은, 자신이 신념대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더 대단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양졸'하셔서 매순간 후회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의 해설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흘러가다보면 내년 겨울엔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만 알고 싶은 강의에서 누구나 알고 싶은 강의가 될 때까지.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上昇線

상승선

상모택

이 책의 저작권은 (주)이매진C&E의 소유이며,
허락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상상국어평가연구소